

버스 요금 인상 또 연기... 올해 모두 동결

거듭된 정부 자체 요청에 공공요금 6종 유지 결정
도 “고유가 등 가계 부담 고려... 내년에 인상 시도”

제주도가 십 수년만에 인상을 저물질 하던 버스요금을 비롯해 지방 공공요금을 올해 모두 동결하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전날 이런 내용의 지방물가 안정관리 계획(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번 계획에 따라 올해 시내버스·택시와 상·하수도, 도시가스, 정화조 청소, 종량제 쓰레기봉투 요금 등 6가지 지방 공공요금을 모두 동결한다.

현재 시내버스 요금은 성인 기준 1200원(카드 결제시 1150원), 택시는 4300원(기본 요금·중형 기준), 상수도는 1만970원(가정용·월 20t 기준), 하수도는 1만2000원(가정용·월 20t 기준)으로 책정돼 있다

또 도시가스 요금은 월 사용량

516MJ 기준으로 도매 1만758.34원 소매 3205.60원이며, 정화조 청소 요금은 1㎡ 기준 1800원, 쓰레기봉투는 20ℓ 기준 700원으로 각각 정해져있다

제주도는 고유가와 경기 침체로 인한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돼 공공요금을 동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가 올해 3월과 6월 제주도에 공문을 보내 지방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할 것을 당부하고, 부득이 올려야할 경우에도 인상 시기를 최대한 늦춰달라고 요청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제주도는 덧붙였다.

올해는 동결됐지만 제주도가 관리하는 지방공공요금들은 여전히

인상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제주도 의뢰로 제주대학교가 실시한 '2026년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용역' 최종 보고서를 보면 도내 도시가스요금은 지난해 한차례 인상됐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가정용 기준 공급 원가는 요금보다 2.8배 높아 오히려 둘 간의 격차가 1년 사이 더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에는 공급 원가가 기본 요금보다 2.2배에 높았다.

택시도 마찬가지다. 제주도개인택시조합은 올해 6월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위성곤 제주지사와의 간담회에서 요금 현실화를 강조하며 인상을 요구했다.

6가지 공공요금 가장 큰 인상 압박을 받는 쪽은 버스다. 제주도 버스요금은 한해 1000억원이 넘는 적자에도 12년째 동결 중이다. 제주도는 2017년 준공영제를 도입하며 버스회사가 거듭된 수입이 운송

원가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보전하고 있다. 지난해 제주도의 준공영제 비용 1147억원 중 83%인 952억원이 버스회사 적자 보전을 위해, 나머지 195억원은 교통 약자 무료 탑승 등 복지에 쓰였다.

제주도는 이런 이유로 심화하자 지난해 4월 버스 기본 요금을 1200원에서 1500원으로 25% 인상하는 계획을 물가대책위원회에 제출했지만 재심의 결정을 받자 그해 요금은 동결하고, 올해 7월 이후 인상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당사 물가대책위는 재심의 이유로 “인상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서민경제가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정부의 거듭된 요청과 여전히 경기가 침체된 점을 고려해 버스요금을 올해도 동결하기로 했다”며 “단 내년에는 인상을 다시 한번 더 시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상민기자

고평기 제주경찰청장 ‘치안정감’ 승진 내정

경찰청, 12일 인사 단행

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이 치안정감으로 승진한다.

경찰청은 12일 치안정감·치안감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고평기(57·사진) 청장을 비롯해 고범석 전남경찰청장, 김종철 경남경찰청장, 유승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등 치안감 4명을 치안정감으로 승진 내정했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인 치안총감 바로 아래 계급으로, 국가수사본부장과 경찰청 차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7개 보직을 맡는다.

치안총감인 경찰청장은 치안정감에서 임명하게 돼 있어 사실상 차기 경찰청장 후보군으로 여겨



진다. 고 청장은 제주시 애월읍 장전리 출신으로 제주대 사범대 부설고등학교와 경찰대(9기)를 졸업

했다. 지난 1993년 경찰에 입문해 2014년 총경 승진 후 제주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과 정보과장, 제주서부경찰서장,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서울서부경찰서장, 경찰청 여성대상범죄수사과장 및 아동청소년과장, 서울경찰청 범죄예방대응부장 등을 역임했다. 2024년 8월 치안감으로 승진해 지난해 9월부터 제주경찰청장을 맡아오고 있다. 박소정기자

도외로 불체자 불법 이동시킨 일당 덜미

제주해경, 중국인 모집책 구속
내국인 알선책·운반책도 송치
70여일 간 잠복·추적 끝 검거

제주에 무사증 입국 후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 중국인들을 도외로 불법 이동시킨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중국인 모집책 A씨(30대)를 검거해 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내국인 알선책 B씨(50대), 내국인 운반책 C씨(40대)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일당과 함께 지난 2024년부터 최근까지 주기적으로 제주에 무사증 입국해 불법체류중인 중국인 다수를 도외로 불법 이동시킨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올해 1월쯤 화물차량에 숨어 화물선을 이용해 불법체류자를 제주에서 도외로 불법이동시키던 운반책 C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모집책 A씨의 존재를 확인했다. 이후 70여 일 간의 잠복·추적 끝에 지난 6월 10일 경남 김해시 일대에서 A씨를 체포해 구속 상대로 검

찰에 넘겼다. 또 수사를 확대해 알선책 B씨도 검거해 지난 10일 송치했다.

해경은 현재 도피중인 것으로 확인된 또 다른 내국인 알선책 D씨(60대)에 대해 전국에 수배 조치를 내려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무사증 제도를 악용한 외국인의 도외 불법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담당 기관인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해상을 통한 밀항·밀입국 등 국제범죄가 의심되면 112를 통해 적극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박소정기자 cosorong@ihalla.com

말 구조 과정 놓고 ‘공방’
마사회 “말 4마리 극적 구조”
시민단체 “구조 경과 밝혀야”

한국마사회가 제주의 한 불법도축 현장에서 말 4마리를 구조했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동물권 단체들이 실제 구조 경과를 밝히려며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행복이네협회와 제주비건은 12일 논평을 내고 “마사회는 말긴급구조체계의 연락 불통을 해명하고, 구조 제보 접수 이후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전체 경과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마사회는 지난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8월 1일 제보를 접수한 후 말 보호 모니터링센터를 중심으로 말긴급구조체계를 가동해 도축 위기 말 4마리를 극적으로 구조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두 단체는 말 구조를 요청하고자 지난 3~4일 이틀간 여러 차례 마사회에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또 불법도축 현장에



말라 시들어 가는 콩 연일 무더위가 이어지며 12일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의 한 농경지에서 자라던 콩이 말라 죽어가고 있다. 강희만기자

서 발견된 퇴역경주마 천행철텔에 대한 해명도 요구했다. 천행철텔은 퇴역 후 ‘승용마’로 전환됐으나 불법도축이 이뤄진 말 농장에서 발견됐기 때문이다.

마사회 관계자는 “제주지역에 있는 협력업체를 통해 지난 1일 구조요청을 접수했으나, 3~4일에는 전화 시스템 문제로 단체들의 신고접수를 받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라며 “시스템 개선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말 구조는 제주도청이 주축이 됐고, 마사회는 구조 대상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제주대와 함께 이송 방안을 논의하는 식으로 협력했다”고 말했다.

퇴역경주마 천행철텔 논란에 대해서는 “현재 자율 신고 방식을 의무화 시스템 문제로 단체들의 신고접수를 받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31일 제주시 구좌읍 소재 말 농장에서 50대 여성 A씨가 말 1마리를 불법으로 도축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현장에는 말의 사체와 함께 말 4마리와 흑염소 1마리가 방치돼 있었으며, 이 동물들은 4일 만에 구조돼 제주대 말산업전문인력양성센터로 이송됐다.

양유리기자 glassy38@ihalla.com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엉 사랑으로

www.kosca39.or.kr

대한민국 광복 87주년을 경축합니다

제주 제2공항 조속한 건설을 제주전문건설인들의 힘을 모아 기원합니다

전문건설인, 대한민국을 세우다!

기술과 사람,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희망찬 제주 미래를 만드는
건설산업의 프로페셔널, 우리는 전문건설인입니다.



KOSCA
대한전문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회장 백 상 훈 외 회원사 일동

제주시 연북로 17. 8층(노형동 건설회관) T.(064) 712-9403~6 F. (064) 805-9407